

S-Oil, 이웃돕기에 쌀 1억원 기탁



S-Oil 울산복지재단(대표 박봉수), S-Oil 류경표 부사장, 김용연 상무는 1월30일 9825만원 상당의 20kg 백미 1990포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만 회장에게 전달했다.

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쌀은 저소득 계층 1840가구와 보훈단체(150포)를 위해 사용된다.

또 자동차 내장 소재·제품을 개발하는 NVH 코리아가 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.

<화학저널 2013/01/31>